산업통상자원부
외교부

보도참고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1. 18.(금) 배포즉시	배포 일시	2022. 11. 18.(금)
담당 부서	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	책임자	과 장 장재량 (044-203-5930)
		담당자	사무관 이지영 (044-203-5939)

202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합동각료회의 결과

- 금년도 정상회의 직전 11.17 방콕에서 개최,
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· 이도훈 외교부 2차관 참석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**과 **외교부 이도훈 2차관**은 11.17.(목)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**제3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외교·통상 합동각료회의**(AMM: APEC Ministerial Meeting)에 참석하였다.

○ 금년 의장국 태국 돈 쁘라맛위나이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주린 락싸나위싯 부총리 겸 상무장관의 주재로 개최된 동 회의에는 APEC 21개국 외교·통상 각료들이 참석하였다.

<APEC 회원국 현황>

동아시아	12	한국, 중국, 일본, 대만, 홍콩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베트남, 태국, 필리핀, 싱가포르, 브루나이
미주	5	미국, 캐나다, 멕시코, 페루, 칠레
대양주 및 기타	4	호주, 뉴질랜드, 파푸아뉴기니, 러시아

□ 금번 합동각료회의에서는 **'개방, 연결, 균형(Open, Connect, Balance)'**이라는 주제 하 **균형·포용적·지속가능한 성장(1세션), 지역 재연결(2세션), 개방·지속가능한 무역·투자(3세션)**을 위한 회원국 협력을 논의하였다.

□ **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**은 **제 3세션**에 참석하여 경제회복과 복합위기 대응에 있어 무역·투자의 역할을 강조하고, **▲다자무역체제 복원, ▲디지털 전환 대응, ▲기후변화 대응 관련 무역투자 역할강화를 우선순위로 제시**하면서 우리의 정책 노력을 소개하고 APEC 역내 협력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.

○ **다자무역체제 복원** 관련, 제12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합의의 성실한 이행 및 세계무역기구 개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, 우리 정부는 분쟁해결제도 개혁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, 제도 개선 논의에 APEC 차원의 기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.

○ **디지털경제 대응** 관련, 디지털 통상규범 강화와 디지털 격차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, 디지털 통상규범 강화 관련 우리 정부의 선도적인 노력과 디지털 격차 극복 관련 디지털 플랫폼 정부, 디지털 포용법 입법 추진 등 국내 노력을 소개하였다.

○ **기후변화 대응** 관련, 환경상품·서비스 교역 촉진과 더불어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, 유럽연합(EU)의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등을 염두에 두고 각국의 무역 관련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.

○ 또한, 우리 정부가 **아태지역의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준비 중인 인태전략**에도 무역투자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.

□ **이도훈 차관**은 **제 1세션**에서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기여와 향후 APEC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.

○ 첫째, 경제 탄력성 회복을 위한 APEC의 협력을 강화하고 APEC의 공급망 연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하는 한편, 아태지역의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APEC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.

○ 둘째, 경제성장과 취약계층 지원 선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, 우리 정부가 아태지역자유무역지대(FTAAP) 논의에 동참하는 한편, 공적개발원조(ODA) 규모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경제성장과 개도국 지원의 선순환도 동시에 도모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.

○ 셋째,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대응과 관련,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% 감축과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며, 녹색기후 재원 및 기후대응 관련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지속 확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.

□ **이도훈 차관**은 **제 2세션**에서 코로나19 시기 APEC이 연계성 강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평가하고, 향후 유사위기에 대비 세 가지 점을 유념할 것을 제안하였다.

○ 첫째, 필요한 시기, 필요한 곳에 대한 백신 공급이 지역 재연결과 팬데믹 종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, 우리 정부의 670만회 백신 기여를 공유하고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한 APEC의 협력을 당부하였다.

○ 둘째, 연계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, 디지털 기술은 팬데믹 시기 화상회의, 입출국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인적 연결 확대에 기여하였음을 평가하였다.

- 윤석열 대통령이 9월 뉴욕에서 제안한 뉴욕구상을 소개하고, 동 구상이 새로운 디지털 질서 구축 등 APEC의 디지털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하였다.

○ 셋째, APEC이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논의의 장임을 평가하고, 지난 1년간 국경간 안전한 이동 논의가 지역 재연결에 기여하였다고 하면서, 우리 정부도 세계 바이오 포럼 개최 등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였다.

□ 우리 정부는 4년 만에 대면 개최된 금번 회의에 외교, 통상 각료가 함께 참여하여 의장국 태국의 주도 하 **팬데믹 시기 개방, 연결, 균형을 위한 APEC의 미래방향을 논의에 적극 참여**함으로써 **APEC 창설 주도국으로서 우리의 위상**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였다.

□ 한편, 돈 쁘라맛위나이 태국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APEC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'방콕 목표*' 문안이 11.16.(수) 합의되었다고 안내하면서, 금년 APEC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할 예정이라고 하였다.

* 공식 명칭 : 바이오-순환-녹색(BCG) 경제에 관한 방콕 목표 (Bangkok Goals on Bio-Circular-Green(BCG) Economy)

※ 의장국 태국은 금년 APEC 성과문서로 ①정상선언(Leaders' Declaration), ②각료성명(AMM Statement), ③BCG경제 방콕목표(Bangkok Goals on Bio-Circular-Green Economy) 채택 추진 중

- 각료성명은 11.17.(목) 합동각료회의 종료 이후에도 문안 협의 지속 (러시아 관련 문안에 대한 컨센서스 미비)
- 정상선언 역시 11.18.(금) 오전 기준, 문안타결을 위한 협의 중

담당 부서	외교부 지역경제기구과	책임자	과 장	서민정 (02-2100-7652)
		담당자	사무관	유형규 (02-2100-7655)
	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	책임자	과 장	장재량 (044-203-5930)
		담당자	사무관	이지영 (044-203-5939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